

# 김은선, 광주 FC 주장 완장 떼고 '백의종군'

지난 2일 2013 K리그 클래식이 개막했다. 예년 같으면 그라운드에서 달리고 있었던 광주 FC 미드필더 김은선은 이날 시청자가 됐다.

팀이 강등되면서 1부리그인 K리그 클래식이 아닌 2부리그 K리그에서 개막을 맞이하는 김은선은 "아프면서도 화가났다"고 말했다. 1부 무대에 있지 못하다는 아픔 그리고 팀의 강등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

김은선은 지난해 주장완장을 차고 광주의 비상을 추락에 함께 했다. 김은선의 마음이 더 아팠던 이유다.

김은선은 "광주에서의 2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다. 마음 먹은대로 안되는 게 프로고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게 프로고, 이길 것 같으면서도 이길 수 없는 게 프로였다. 두 번만 더 이겼어도, 내가 조금만 더 경기운명을 잡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올 시즌에는 주장이 아닌 선수 김은선으로 돌아왔다. 경험 많은 박병주가 주장 역할을 해주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올 시즌에는 '선수 김은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은선은 "지난해에는 내 자신보다는 어떻게든 팀이 강등이 안되게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올해 목표는 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이다. 내가 더 올라서고 발전하면 팀도 저절로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은 새로운 축구와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한 시기였다. 새 사령탑 어범규 감독의 '패스 축구'에 적응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새로운 재미도 느끼고 가능성을 봤다.

김은선은 "감독님께서 공을 쉽게 버리지 않고 짧게 짧게 패스 플레이



1부리그 유혹도 있었고  
이적 고민도 컸다  
하지만 광주는 축구 고향  
나를 원하는 이곳에서  
축구 역사 다시 쓰고싶다

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걸 강조하신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실험을 많이 했다. 안 보던 것을 보니까 재미있고 경기가 기다려졌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감독, 김은선의 2013시즌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해 8골을 넣었던 공격의 복병으로 활약했지만 올 시즌에는 뒤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김은선은 "공을 넣으면서 주목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공격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밀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많은 경험을 한만큼 흔들리지 않고 지고 있을 때와 이기고 있을 때 상황에 따른 경기 운영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매년 부상으로 겨울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부상 없이 페이스를 유지한 만큼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다시 해보자"며 동진 선수단 분위기도 좋다. 하지만 이런 봄을 맞이까지 혹독한 겨울이 있었다.

김은선 "프로선수로서 1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함께 한 선수들이 이적을 하는 동안 유혹이 있었고 고민도 있었다. 광주의 선수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다. 잔류를 결정했을 때 축구 인생 최고의 실수를 하는 것이라 말도 들었다. 하지만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책임감도 있고 1부로 다시 팀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 나를 원하는 팀에서 축구를 하는 게 맞다. 나를 인정해주고 원하는 광주에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3 시즌을 앞둔 광주 FC가 4일 새 출발을 다짐하며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미션 "사진 찍는 선수를 웃겨라"

광주 FC 사진찍는 날

짓곳은 장난에 '웃음바다'

오전 훈련 뒤 낮잠은 축구 선수들의 일과 중 하나.

4일 오후 광주 FC 선수들은 강도높은 오전 훈련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거르고 한자리에 모였다. 훈련 뒤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말쑥한 모습으로 등장한 선수들, 프로필 사진 촬영 때문이었다.

선수들은 이날 올 시즌 자신을 대표하게 될 개인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처음으로 코칭스태프를 포함한

선수단 전원이 모여 단체사진도 찍었다.

모처럼의 사진 촬영에 선수들은 장난꾸러기가 됐다. 미션은 '사진 찍는 사람을 웃겨라'.

카메라 앞에 선 김은선에게 "눈을 크게 떠주라"는 주문이 나오자 선수들은 "크게 뜬다고 눈이 커지나"라고 말해 촬영장은 웃음 바다가 됐다.

남기일 수석코치도 "범수 형!"이라는 선수들의 외침에 웃음을 참느라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남기일 수석코치는 가수 김범수를 닮은 외모에 '범수 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간신히 촬영을 마친 남 수석코치는 "오후 훈련 때 보자"고 응수에 다시 한번 선수단의 웃음이 터졌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진행된 단체 촬영 분위기도 유쾌했다.

안자리를 놓고 "꽃미남들의 자리다"와 "난쟁이들의 자리다"를 놓고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는 등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강동의 아픔을 지우려 광주가 한껏 업그레이드 된 분위기로 3월16일 개막을 위한 준비를 착착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주영 버리고 이동국 택했다

최강희호 카타르전 명단 23명 발표... 이동국 원톱



26일 카타르와 월드컵 최종예선에 원톱으로 낙점 받은 이동국.

손흥민·구자철·지동원 승선

수비엔 김창수·한국영 발탁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부진한 '골잡이' 박주영(셀타 비고)이 카타르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에서 제외됐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은 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2일 시리아와의 평가전과 26일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서울월드컵경기장)에 나설 23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최전방 공격진에는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 화려한 발리 슈팅을 선보인 '라이언킹' 이동국(전북)을 필두로 장신 공격수인 김신욱(울산)이 이름을 올렸지만 박주영은 빠졌다.

박주영은 그동안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역할을 맡았지만 소속팀인 셀타 비고에서는 이번 시즌 단 3골에 머무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30일 스페인 국왕컵 득점 이후 2개월이 넘도록 골 맛을 보지 못하면서 스페인 언론으로부터 '영입 실패작'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반면 소속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손흥민(함부르크)-구자철-지동원(이상 아우구스부르크) 3인방을 모두 발탁했다.

또 잉글랜드 무대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기성용(스완지시티)은 물론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이청용(불턴)도 최 감독의 부름을 받았지만 김보경(카디프시티)은 제외됐다.

여기에 FC서울의 주장인 하대성을 비롯해 수원의 주장인 김두현과 신형민(알 자지라)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미드필더로 호출됐다.

김두현은 지난해 6월 레바논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 이후 9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고, 런던올림픽 최종명

월드컵 예선 카타르전 선발 23명

FW	이동국(전북) 김신욱(울산)
MF	신형민(알 자지라) 한국영(소냐 벨마레) 이근호(상주) 지동원 구자철(이상 아우구스부르크) 하대성(서울) 기성용(스완지시티) 김두현(수원) 이청용(불턴) 손흥민(함부르크)
DF	박원재(이상전북)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 김기희(일산)라팰레(알 사랍) 장현수(FC도쿄) 김창수(가시와레이슬) 오범석(경향성)
GK	김영광(울산) 정성룡(수원) 이범영(부산)

단에서 탈락한 한국영(소냐 벨마레)은 최강희호에 첫 승선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종우(부산)는 '독도 세리머니'에 따른 국제축구연맹(FIFA)의 A매치 2경기 출전정지 징계에 따라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수비라인에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로 이적한 '기대주' 윤석영이 이름을 올린 게 눈에 띈다.

최 감독은 지난해 연말 경찰청에 입대한 베테랑 오른쪽 풀백인 오범석도 발탁했다.

중앙 수비에는 광태휘(알 사랍)가 선발됐지만 최근 크로아티아 평가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이경수(알 사드)는 제외됐다.

최 감독은 박주영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경기방식에 따라 선수명단을 정했다"며 "지금 대표팀 미드필더나 공격수를 보면 카타르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충분하다.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을 토대로 선수를 선발했다"고 말했다.

결국 반드시 이겨야 하는 카타르전을 대비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 위주로 발탁하느라 박주영을 뺀 것으로 분석된다.



박주영

# 기성용의 스완지, 한글 페이스북 개설 한국 팬들과 소통

광주출신 기성용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Swansea City)가 지난달 1일 공식 한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wansea-city)를 오픈, 한국 팬들과의 소통강화에 나섰다. 스완지시티는 공식 한글 페이스북

을 개설하면서 "한국의 스완지 시티 팬들을 위해 스완지 시티 구단의 깨알같은 소식과 정보 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스완지시티 페이스북은 마이클 라우드럽 감독과 기성용 선수 인터뷰를 비롯해 생생한 경기결과, 캐피탈원컵 우승 기념 퍼레이드, 스완지 시

티 응원가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내용은 짧은세대 팬을 겨냥한 인터넷 유행어로 꾸며지고 있다. 마이클 라우드럽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안녕하세요 코리아 팬 여러분 기성용 선수한테 스완지 응원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

고, 캐피탈원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지난달 25일에는 "어서와 이렇게 멋진팀은 처음이지?"라는 글이 올려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난 2일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스완지 시티 한글 페이스북 오픈하고 딱 한달이 지났는데 벌써 좋아요가 3715, 스완지시티의 인기가 대박의 전두엽까지 전해지는군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p>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p> <p><b>(주)대원여행사</b></p> <p>062)526-7000</p> <p>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p> <p>광주역 525-4835   송정역 941-3278</p>	<p><b>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b></p> <p>출발일 <b>3월 22일(금)</b>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p> <p>여행비 68,000원</p> <p>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p> <p>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p> <p>불포함 식사비</p> <p>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p>	<p><b>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b></p> <p>출발일 <b>4월 4일(목) / 4월 9일(화)</b> 광주역 출발(당일)</p> <p>여행비 37,000원</p> <p>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황산공원</p> <p>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p> <p>불포함 식사비</p>
--	--	---